

# 해안선 따라 원시림 숲 ... 터벅터벅 걸으면 저절로 힐링

## 울릉도 여름여행

### 경북

쉽게 오갈수 없어 더욱 신비롭게 여겨지고 갈망하게 되는 여름 여행지, 바로 울릉도다. 울릉도는 하늘이 길을 허락해야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섬이다. 동해의 거센 물살 탓에 풍랑이 거칠면 배가 결항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뱃길도 멀다. 포항에서 217km, 후포에서 159km 떨어져 있어 쾌속선이라도 2~3시간 배를 타야 한다. 왕복 길을 생각하면 일정 중 하루를 온전히 오가는데만 소요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미지는 독야청청(獨也靑靑) 고집스럽다. 제주도처럼 수백편 비행기편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남해나 서해의 수많은 섬들처럼 다리가 놓이거나 다른 섬들과 울망줄망 어울린 것도 아니다. 질푸른 동해 먼 바다에 홀로 우뚝 솟아있다.

그때도 과거에는 '외로운 섬'이라고 불릴 만큼 인적이 뜸했던 울릉도가, 요즘에는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찾아나서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각광받는 인기 여행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명 관광지라 하면 아직 잠자리나 편의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런만큼 소박한 섬총각의 투박한 맨얼굴을 즐기는 묘미가 있다. 같은 화산섬이라도 제주도가 풍만하고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지라면, 울릉도는 선 굵은 남성의 이미지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온통 빼죽빼죽 솟은 기암괴석과 가파른 절벽의 장엄한 선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다.

아직까지 올 여름 휴가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울릉도로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울릉도는 내륙보다 기온이 낮는데다, 시원한 해풍의 영향으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 피서지로 제격이다.

#### ◇걸어야 제대로 보인다

'신비의 섬'이라 불리는 울릉도. 수천년 오래된 원시림과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잘 보존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울릉도 여행의 콘셉트는 '힐링'으로 잡고, 매일 하루 1시간 남짓한 트레킹 코스를 걷기로 했다. 원시림을 걸으며 도심에서 찌든 피부에 상쾌한 바닷내음과 숲향기를 가득 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선택한 코스는 나리분지에서 신령수 약수터까지 가는 '나리분지 숲길'이다. 울릉도 최고봉 성인봉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길이 넓고 평탄해 40분 남짓 간단히 산책을 즐기기에 부담없는 곳이다. 울릉도 유일한 평지인 나리분지에는 너른 들판 가득히 푸르른 나물들이 자라고 있다. 작은 하얀꽃이 동그랗게 핀 명이나물도 구경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자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하늘 높이 쪽쪽 뻗은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면서 잎사귀들이 투명한 초록색으로 반짝인다. 온 숲이 반짝반짝 빛나며 세포 하나하나까지 피톤치드로 채워지는 느낌이다. 나도밤나무와 우산고로쇠, 마가목 등 오래된 큰 나무들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이 세상 모든 근심들을 가지끝에 살포시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다.

내수전에서 석포로 이어지는 길은 양치식물의 천국이다. 울릉 돌레길의 일부로, 해안선을 따라 원시림의 숲속을 걷는 길이다. 현재 이 구간은 울릉 일주도로에서 유일하게 연결되지 않은 구간이어서 산길로만 오갈수 있다. 울릉 일주도로는 이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숲 연말쯤 완성되게 된다.

숲을 걸으면 평소 관심조차 없었던 나무 하나, 풀 하나가 오롯이 눈에 담긴다. 자연이 가져다주는 여유를 톡톡히 볼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꽃인 줄 착각하고 있는 양, 잎이 7~8개 방사형으로 뻗어 꽃보다 더 예쁜 작은 풀잎이 신기하다. 막걸리나 술로 담가먹는다는 빨간 열매의 마가목도 알게됐다. 그중 가장 놀라운 풍경은 계곡 위 아래로 빼곡히 펼쳐진 양치식물 군락이다. 습기가 많더니 양치식물이 덤불 높이만큼 자라 기세를 뽐낸다. 식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대중 '양치식물'이라 통칭하지만 자체



**신선암** 울릉도 비경 중 제1경에 꼽히는 삼선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지상에 내려와 목욕하던 세 선녀가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관음도** 울릉도 본섬에서 바라보는 관음도 풍경이 한 장의 엽서처럼 아름답다.

#### 풍경 담으려 셔터 누르면

#### 알아서 찾아오는 팽이갈매기

#### 관음도·삼선암·코끼리 바위·대풍감

#### 풍경 보며 한걸음 한걸음 시원해

히 들여다보면 잎들의 모양이 여러가지여서 그 종류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친구가 되어준 것이 바로 울릉도 부속 섬 중 하나인 '죽도'다. 길을 걷는 내내 숲 사이로 푸르른 바다가 내려다보일 때마다 죽도가 함께 눈에 들어온다.

마지막 걷기길로 선택한 것은 울릉도 최고로 꼽히는 해안 돌레길 중 저동과 도동을 연결하는 행남해안산책로다. 원래는 해변을 따라 걸을 수 있지만 근래 일부 구간이 공사중으로, 저동에서 출발하면 한참 가파른 산길을 30여분 정도 걸어야 비로소 해변산책로에 닿을 수 있다. 꽤나 진을 뺐지만 바다에 닿는 즉시 이런 수고로움 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만한 비경을 선사한다. 바위와 화산활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절벽, 그리고 파도가 만든 천혜의 풍경인 해식 동굴 사이로 아슬아슬 이어지는 길이다. 이 길을 걷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마치 사파이어처럼, 푸른 잉크를 풀어놓은 것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울릉도 특유의 물빛을 잠시도 쉬지 않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가깝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 ◇해안도로 따라, 즐거운 명소들

관음도는 한 때 주민이 살기도 했지만 지금은 무인도인 섬으로 본섬과 불과 100여m 떨어진 섬이다. 2012년부터 다리로 연결돼 관광객들에게 공개됐는데, 일단 울릉도 본섬에서 바라보는 관음도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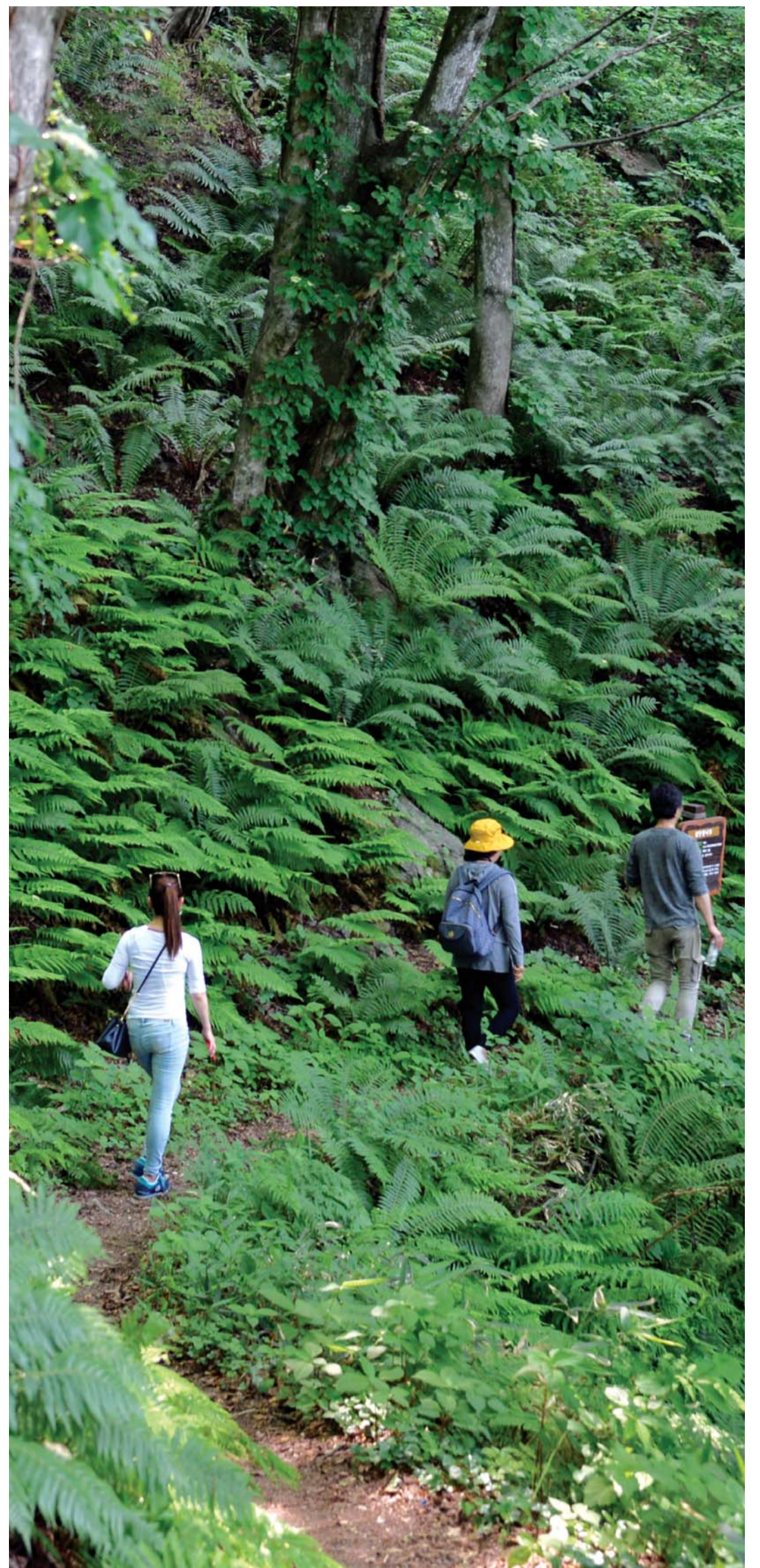
경이 한 장의 엽서처럼 아름답다.

다리를 건너면서 섬 전경보다 먼저 감각을 사로잡는 것은 현수교 주변 바위벼랑에 하얗게 붙어있는 팽이갈매기들이다. 워낙 그 수가 많아 이들의 끼룩거리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합창소리같다. 풍경을 담으려 셔터를 누르면 마치 모델인 양 알아서 찾아와 화각 내 포인트에 포착돼 주는 센스까지 갖췄다. 다리 아래로는 용암이 급속하게 식으면서 만들어진 방사형의 주상절리와, 바다까지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물빛이 마음을 흥진다. 관음도는 30~40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다.

관음도에서 반대로 울릉도 본섬을 쪽을 향해 보면 세계의 바위가 비죽비죽 솟아오른 비경이 눈에 들어온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지상에 내려와 목욕하던 세 선녀가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삼선암(三仙巖)이다. 목욕하러 내려간 선녀가 걱정된 옥황상제가 용감한 장수와 날쌔 용을 내려 보냈는데 막내 선녀가 그만 장수와 눈이 맞아 정을 통하면서, 옥황상제가 크게 노해 세 선녀를 모두 돌로 만들어 버렸다는 스토리가 전해진다. 해안도로를 조금 더 따라가면 코끼리 바위라고도 불리는 '공암'도 만날 수 있다.

'대풍감'은 울릉도를 찾은 이들이라면 꼭 사진 한 장쯤 갖고 있는 관광명소다. 소위 울릉도의 들쭉날쭉 아름다운 해안선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예로부터 좋은 나무가 많아 배를 만들기 위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완성한 새 배를 본토로 가져가기 위해 돛을 높이 달고 육지로 바람이 불 때까지 바위 구멍에 맞출을 매어 놓고 기다렸다가 해서 붙여진 이름이 '대풍감(待風坎)'이다. 이곳을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 태하 등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일품이다.

/매일신문=한윤조기자 cgdream@



**내수전 - 섬목돌레길** 내수전에서 섬목으로 이어지는 트레킹로는 양치식물의 천국이다. 울릉 돌레길의 일부로, 해안선을 따라 원시림의 숲속을 걸을 수 있다.

/매일신문 이채근 선임기자 mincho@msnet.co.kr



新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계절의 보양식 **삼계탕**  
시원한 여름 별미 **물회**  
담백한 별미 **민어회**

과죽이는 **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 7월말 · 8월초 정상 영업합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